

월요광장



정봉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인생의 8할

건 기본, 양말을 벗어 보면 엄지발톱이 퍼렇게 멍들어 있기도 했다. 그런데도 또 새로운 도서관을 만나면 눈빛이 반짝였다. 이쯤 되면 어느새 동네가 머릿속 지도에 그려지고 험지인처럼 헤매지 않고 다닐 만하다 여겨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 도시를 떠날 때가 됐음을 알아차린다.

한 도시의 문화를 며칠의 여행으로 어찌 알 것인가. 그래서 미리 찾아보고 적어 온 것을 토대로 정말 그런가? 무엇이 다른가? 들여다보려고 애썼다. 도서관 관계자와 독서 단체 사람들을 만나는 미팅 시간에는 단어 하나라도 놓칠새라 귀를 기울였다. 빼곡히 채워 온 노트를 들춰 가며 우리끼리 가이드가 되고 동반역자가 되어 주었다. 우리가 묻고 그들이 답하면서 삶의 방식과 문화의 토대는 달라도 책으로 하나 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다. 숙소에 돌아오면 와이파이가 안테나가 사라지기 전에 일기를 썼다.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면서 여행을 살처럼 실행했다. 누가 사키지 않았으니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책 마을에서 발견한 초판본의 그림책, 백 년도 넘는 풍화책을 보고 잠새가 방앗간을 그냥 돌아 나올 수는 없었다. 신기한 책을 볼 때마다 감탄하며 사 모은 것이 보따리를 가득 채웠다. 디자인 멋진 도서관의 홍보물들과 베품시장에 나온 고서들, 지역의 역사를 아카이브한 도서관 자료와 엽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림책과 캐릭터 인형, 특산품들을 이고지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흡사 '보따리 장사' 같았다. 돌아와 무수한 사진들을 뽑아 앨범을 만들고, 비행기 타고 온 물건들을 책상에 펼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 마당을 펼쳤다. 책 모양의 맛이 희한한 젤리를 나눠 먹으면서 여행기의 한 자락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앞으로도 도서관 여행은 계속될 듯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들의 여행도 자연스럽게 진화했다. 오로지 도서관과 서점, 책 문화 공간에 쫓겨 있다가 조금씩 미술관과 책 마을, 예술극장과 베품시장이 생겼고 공존한다는 사실이 놀라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꿈꾸는 이상들이 이 나라 현실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 꿈만 같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라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판타지 같았다고나 할까.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도 담담하게 감동의 현장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현재에 대한 애뜻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서다. 우리는 우리대로 걸어갈 길이 있고 거기에 담겨지는 시간과 역사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본 이상 세계가 있으니 적어

도 도서관의 미래를 향한 기준 하나는 붙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영혼이 노니는 천국의 서점' 을 가만가만 거닐 때, 햇살 좋은 오후의 노천카페에서 로컬 맥주로 입술을 적실 때, 아름다운 유리벽에 반사되는 책들의 반짝임을 볼 때, 책이 있는 공간에서 식사를 할 때, 그림만으로 흐리는 책의 유혹을 느낄 때, 이토록 아름다운 책 공간을 사랑하지 않을 재간이 없어서 물레 눈물을 흘렸다.

국경을 넘지 못하게 되어 주어진 뜻밖의 한나절, 네덜란드 시인의 이름을 딴 공원에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질 때도 그랬다. 유난히 햇빛 좋은 휴일이라 사람들은 공원에서 일광욕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공 차고 뽀뽀하고 대화하고 책 읽고 잠자고 놀고 뛰고 걷고 먹고 마시고 웃고 자전거를 탔다. 이 모든 것이 한 공간에서 자유로이 펼쳐진다는 게 신비로웠다. 그들이 가장 잘하는 말, '노 프로블럼' (No problem). 모두가 저마다의 삶을 반짝, 내다 말리는 하루가 좋아서 눈물이 났다. 여행은 자기 우리의 삶을 반사시킨다. 익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늘 새로워질 것을 요청하는 묘약인 탓일까.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전국 최고 사전 투표율 본투표로 이어지기를

지방선거 사전 투표 결과 전남이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의 투표율을, 광주는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면서 사전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본투표에서도 이러한 열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 투표 결과 전국 유권자 4290만7715명 가운데 864만897명이 투표를 마쳐 20.1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사전 투표율 11.49%나 2016년 20대 총선에서 12.19%보다도 높은 것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투표율이 31.73% (50만468명)로 가장 높았다. 광주는 23.65% (27만7252명)를 기록해 전남과 전북 (27.81%), 세종 (25.75%), 경북 (24.46%), 경남 (23.83%)에 이어 여섯 번째였지만 광역시 가운데서는 최고였다.

전국 구·시·군 가운데서는 장성군이 43.7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또한 전남의 고흥 (43.45%)·곡성 (41.05%), 전북 순창 (42.14%)·무주 (41.88%)·장수 (40.45%) 등 호남에서만 여섯 개 군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지방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열두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역시 영암·무안·신안이 32.29%로 최고를 기록했고, 광주 서구갑도 24.16%로 전국 평균 21.07%에 비해 높았다.

광주·전남의 높은 사전 투표율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박빙 선거구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호남은 역대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다른 지역을 웃돌아 유권자들의 높은 주권 의식을 보여줬다. 이를 앞으로 다가온 본투표에서도 유권자들의 적극 참여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앞당겼으면 한다.

가격 폭락 양파 재배 농민들 시름 덜어 주자

양파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반값 이하로 떨어지면서 재배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산지 양파 가격은 20kg당 을 기준으로 할 때 상품은 kg당 300~350원에, 하품은 kg당 100~15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도 못 되는 가격이다.

이처럼 양파 가격이 폭락한 것은 지난 겨울 혹한 및 봄의 이상 저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갖가지 병이 번졌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양파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올해 양파 재배 면적이 전국적으로 40% 정도나 늘어나 가격 폭락을 부채질 했다.

양파 가격이 폭락으로 재배 농민들의 어려움이 극심해지자 농협은 무안 지역의 비계약 양파 재배 농가 생산 물량을 긴급 구매하기로 했다.

농협 경제지주는 최근 무안농협에서 전국 양파 생산 최대 주산지인 무안 지역 다섯 개 농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파 산지 가격 지지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갖고 농협 비계약 농가가 생산한 양파를 농협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양파 사 주기 운동도 한창이다. 농협은 씨카카오와 함께 양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스토리펀딩' 을 통해 '명인의 양파에도 시련은 온다' 특별전을 펼치고 있다.

PC와 모바일로 '다음 스토리펀딩' 사이트 (https://storyfunding.daum.net)에 들어가면 무안 운남농협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양파로 만든 양파즙을 시중 가격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양파는 고혈압 등에 좋은 데다 수분 함량이 90%나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이 무더운 계절에 생으로 먹어도 좋다. 양파를 가열해 만드는 '양파탕' 은 설탕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양파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의 시름을 덜고, 저렴한 가격으로 여름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겠다.

꿈꾸는 2040



하정호 위민연구원 이사 청소년플랫폼 미당집 마당식

민주주의의 꽃, 선거

치 시기에 뿌린 선거의 씨앗이 줄기를 뻗어 잎을 달고 민주주의로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니, 민주주의가 선거의 꽃이다.

하지만 꽃이라 해서 다 똑같지는 않다. 하루면 지고 마는 꽃도 있고, 찾아온 끝벌을 잡아먹는 꽃도 있고, 그 향기가 천리를 가는 꽃도 있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꽃이 있고, 차라리 꽃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꽃도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가? 전국적으로는 극우 보수 세력이 꺾였지만, 호남에서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보수성을 드러내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누군가에게 줄 서지 않으면 당내 경선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한다. 제대로 정치를 할 것 같은 기초의원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좋은 순번을 꿰찼다는 말도 들려온다. 아무 향기 없는 꽃 마냥, 인기가 드높을수록 추문만 늘어났다.

기성 정치에 기대를 접은 시민들이 광

주시 교육감 선거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장휘국 후보는 '대한민국 대표 진보 교육감' 을 자처하고, 최영태 후보는 '시민 경선 혁신 교육감' 을 내세우며, 이정선 후보는 '첫 번째 혁신 교육감' 을 구호로 내걸었다.

지켜보는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진보 교육감' 은 뭐고 '혁신 교육감' 은 또 뭐가. 그런 상표를 붙이려면 더 많은 단체의 지지가 받으면 되는 건가. 그 단체들은 왜 또 자기들끼리 '진보'네 '혁신'이네 상표를 붙이고 더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팔려고 싸움을 벌이는가. 그런 상표는 정말 물건을 제대로 선전하고 있는가. 세 후보가 주장하는 '진보'나 '혁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인지 애스롭기만 하다.

선거를 치른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건 아니다. 유력자에 쫓겨서 없으면 무대에 오를 수조차 없는 선거는 귀족 정치에 불과하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특정 후보를 '진보'와 '보수'라고 딱지 붙이고

그 상표만 보고 선택하게 하는 것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이념으로 광주를 동강내지 말고, 위기에 처한 광주 교육을 살려낼 교육감을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 기성 정치에서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다면, 거기서 한 발 비껴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보자. 진보와 보수는 낡은 틀로 새로운 광주를 그려낼 수 없다. 무한한 다양성을 지닌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을 들쭉거리서 안 된다.

맹자의 말처럼 그물을 쳐서 백성을 잡는 것은 위정자의 도리가 아니다. 낡은 이념의 그물 속에 시민들을 가두려 하지 말고,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그 그물을 찢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통해 광주의 미래를 그려가는 교육감의 역할이다. 아이들은 경계를 넘어서 미래를 가져오는 사람들이다. 만일 민주주의가 선거의 꽃이라면, 이번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 활짝 피기를 바란다.

기고



정대원 호남대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단장·전기공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의 꽃, 자율 주행 전기차

길도 돌아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기술의 한계가 존재한다. 움푹 패인 아스팔트나 막히는 도로를 피해 스스로 코스를 바꿀 수는 없다. 자율 주행차의 핵심이 자동차와 주변 환경 사이의 연결, 즉 '커넥티드 (connected)' 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자율 주행차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집, 회사, 친구들과도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집, 회사, 친구들과도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집, 회사, 친구들과도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협업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은 ICT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기술 융합을 의미하며 물리학 기술, 인공 지능, 빅데이터 기술로 집약된다. 무인 운송 수단인 자율 주행 전기차 산업 기술은 메카트로닉스에 기반한 센서 융합이 요구되는 인공 지능과 융합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융합 기술 분야이다.

인공 지능은 컴퓨터가 사고력과 학습 능력을 통해 자기 계발이 가능하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활용 및 정보화 기술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자율 주행 전기차량 산업 기술은 광주시의 전략 산업인 친환경 전지차량 기술을 접목하기에 용이한 기술이다.

광의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은 ICT

융합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소비-제조-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능형 인터넷으로 연결시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서비스 시장 전체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최대 관심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요구 사항의 변화를 재빨리 상품과 서비스에 반영,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기술의 혁신에 달려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인공 지능화, 융합화로 대표되는 IT와 금융 산업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과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함께 기술 혁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거 노동 집약적 대체 기술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능 기반의 기술 진화로, 기업 가치의 핵심인 양적 효율성 증대에서 무형 자산의 확보와 활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정부 정책과 전망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지역 중소기업이 새로이 도약할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광주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빛그린 국가산

단(자동차 전용 산단)에 3030억 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진행되는 이 사업은 406만8000㎡ 규모의 자동차 전용 산단을 조성하고 부품 기업 공용 장비 및 지원 센터 구축, 친환경 부품 유망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친환경 전기차, 자율 주행차, 인공 지능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에 대한 공동 기술 개발, 학술 연구 교류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올해 4월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교육부의 4차 산업 혁명 혁신 선도 대학에 선정된 호남대학교는 광주시와 손잡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자율 주행 친환경 전기차 분야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US Hybrid, 중국 칭화대, 서울대 융합대학원, GIST IDEC 등 국내외 우수 연구 기관과의 활발한 연구 교류를 통해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과 자율 주행 전기자동차 분야를 선도해 나갈 미래형 인재 양성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은 물론 광주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다.

無 等 鼓

방탄소년단(BTS)의 3집 '러브 유어 셀프 전 티어'가 최근 빌보드 차트에서 정상을 석권했다. 한국 가수가 빌보드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요계에선 100년 대중음악사의 이정표이자 '방탄대첩'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한국어)로 된 음악이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 1위에 오른 건 그 자체로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뿐 아니다. 3집 앨범은 발매 이후 2주 만에 166만 장이 팔려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북미와 유럽에서 개 최하는 월드 투어에서 는 28만장 전석이 매진 되는 등 글로벌 티켓 파워를 과시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이 장르의 경계를 넘어 출판계에 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앨범의 모티브가 됐던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창작 아이디어의 발원지로 알려진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미술 가게'가 대표적이다. 꿈을 잃은 가난한 소년에서 스탠퍼드대 교수가 된 저자의 이야기는 노래의 메시지와 궤를 같이한다.

이밖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어슬

러 K 르 권의 '오페라를 떠나는 사람들'에서도 영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 책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BTS의 인기 요인을 분석한 책들은 철학적이며 인문학적인 사유가 녹아 있다.는 사실을 든다. 'BTS-어서 와 방탄은 처음이지', 'THIS IS 방탄 DNA' 등은 콘텐츠와 메시지의 무엇이 특별한지를 조명한다. 방송 작가 구자형은 '세상의 편견과 시대의 역할'이라는 총알 때문에 '피땀 눈물 흘리는 청춘'들을 위해 '기꺼이 방탄조끼'가 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힌다.

젊은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고통과 눈물을 승화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는 청춘을 향해 '총질을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방탄국회단' 이 그들이다. 심각한 청년실업에는 눈감은 채, 그들은 비리 혐의를 받는 동료 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실은 방탄을 뚫게 돼 있다'는 점이다. 투표라는 '총알'이 가져올 결과가 기다려진다.

*박성민 문화부 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주)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주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